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Marti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권영옥**
Kwon, Young Ock
이정덕***
Lee, Jung Duk

ABSTRACT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potentially adverse consequences for children of martial conflict from the children's perspective. Children's perception of martial conflict was analyzed by relationship to behavior problems (assessed by the parents) and demographic variables (child's sex and age, parents' education, father's occupation, mother's employment, mother's age and family income).

Children's perception of martial conflict varied by child's age and sex, parents' education, father's occupation, mother's age, and family income. On the other h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varied not by child's age and sex but by parents' education, father's occupation, family income, and mother's ag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varied by child's perception of martial conflict and by frequency of martial conflict and self-blam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tial conflict and behavior problems varied by child's age and sex.

I. 서론

부부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Grych & Fincham, 1990). 실제로 '문제 있는' 결혼생활에서 '문제 있는' 아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3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자, 심리역동분석가, 가족체계 이론가 및 행동주의자들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 본 논문은 1997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성 문제(변영인, 1995; 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내면성 문제(Holden & Ritchie, 1991), 사회적 능력(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및 인지적 능력(Long et al, 1987)과 관계가 있으며,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아동행동문제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Harold & Conger, 1997).

그런데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결혼생활의 불화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부부간의 갈등보다는 일방적인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변영인, 1995; Goldberg & Easterbrooks, 1984) 이러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에 의해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부부갈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갈등의 다차원적인 성격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갈등의 서로 다른 형태나 차원에 따른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부갈등측정 척도인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와 O'Leary-Porter Scale(OPS; Porter & O'Leary, 1980)은 부부간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의 빈도와 의견 불일치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갈등의 유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노가 표현

되는 갈등상황(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불완전하게 해결된 갈등(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그리고 아동이 관련된 내용의 갈등일수록 아동의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마침을 나타낸다. 그 외에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아동의 외현성 문제와 관계가 있고 부모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아동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다(Fincham, Grych, & Osborne, 1994)고 하여 갈등의 차원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행동문제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갈등의 빈도가 아닌 갈등의 다차원적인 양상을 평가하는 것이 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보고를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보고는 부부갈등상황에 대해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도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상보다도 그에 대한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이 아동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Furman & Buhrmester, 1985)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부부갈등을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Grych와 Seid 그리고 Fincham(1992)이 아동의 관점에서 부부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 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가족내의 가부장적 전통과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의 혼재로 부부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부부갈등이 가정붕괴의 원인으로 자녀의 정신건강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백상창, 1996)고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유래 없이 불안정한 우리 나라 상황은 가족, 특히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부간의 불화가 아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부갈등의 다차원적인 면을 아동이 주관적으

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가 아동과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 변수 및 부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행동 문제는 아동 변수 및 부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라 아동 행동 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 행동 문제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Jouriles, Pfiffner, & O'Leary, 1988)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를 부모가 모두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출처에서 얻어진 자료보다 더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O'Leary & Emery, 1984)는 방법론상의 결함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고 아동 행동 문제는 부모가 답변하도록 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작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1개교씩을 유의표집하였으며 총 14개반 487쌍의 남녀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아동의 성별	남	242	(49.7)
	여	245	(50.3)
아동의 연령	4학년 (10세)	245	(50.3)
	6학년 (12세)	242	(49.7)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49	(10.1)
	고졸	174	(35.8)
	대졸	171	(35.1)
	대학원 이상	93	(19.0)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	(20.5)
	고졸	199	(40.9)
	대졸	164	(33.7)
	대학원 이상	24	(4.9)
아버지 의 직업	무직	4	(.8)
	일용직노무직	38	(7.8)
	판매생산서비스직	190	(39.0)
	사무직	84	(17.3)
	행정관리직	124	(25.5)
	전문직	47	(9.6)
어머니 의 직업	무직	338	(69.4)
	일용직노무직	35	(7.2)
	판매생산서비스직	65	(13.4)
	사무직	29	(5.9)
	행정관리직	5	(1.0)
	전문직	15	(3.1)
월 평균 가계소득	49만원 이하	3	(.6)
	50-99만원	26	(5.3)
	100-149만원	94	(19.3)
	150-199만원	86	(17.7)
	200-249만원	94	(19.3)
	250-299만원	71	(14.6)
300만원 이상	113	(23.2)	
아동행동 평가자	부	85	(17.5)
	모	394	(80.9)
	기타	8	(1.6)
계		487	(100.0)
모의 연령	36세 이하	118	(30.0)
	37세 이상 40세 이 하	181	(45.9)
	41세 이상	95	(24.1)
	계	394	(100.0)

2. 조사도구

1) 부부 갈등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란 아동이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이정덕(1997)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Grych와 동료들(1992)이 개발한 CPIC 척도는 부부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정도 및 내용과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해당하는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9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차원의 내적 합치도가 낮아 제외된 후 나머지 8가지 하위차원을 척도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2) 아동행동문제척도

아동 행동 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임상검사 전의 유용한 예비 판별 도구로 평가 받고 있는 조사 도구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아동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이다(Holden & Ritchie, 1991). CBCL은 국내에서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와 하은혜(1991) 및 한미현과 유안진(1995)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 되었다. 이혜련과 동료들(1991)은 CBCL을 아동행동조사표라고 명명하였으며 총 120문항 중 신체적인 문제 8문항, 내면적증상 72문항, 외면적증상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현과 유안진

(1995)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1991년판 아동 행동 평가 척도(CBCL)를 아동 행동 문제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9개 하위 영역 중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의 5개 영역을 아동 행동 문제 척도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런 편이다'에 3점, '약간 그런 편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3. 자료분석

아동 및 부모관련 변수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 일원 변량분석, Scheff 검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부 갈등 정도에 따른 아동 행동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과 Scheff 검증을 하고,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관계를 검증한 후, z-test에 의해 상관계수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검증하였다. 그 외에 아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아동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부부갈등 지각

먼저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면 지각한 부부 갈등의 내용, 지각된 위협, 해결차원과 부부 갈등 전체에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든 하위차원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부부갈등상황에서 두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가 높다. 또한 부부 갈등 전체 지각도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취업유무와 직업, 모의 연령, 가계소득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부

모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이거나 고졸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일용 노무직인 경우, 가계소득이 적은 경우 부부갈등 상황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함을 나타냈다. 내용차원에서는 버지의 직업이 일용 노무직 혹은 사무 관리직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 아동이 부부 갈등 상황에서 부모사이에 끼어 곤란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 행동문제 먼저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동 행동 문제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동 행동 문제는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 행동 문제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과잉행동영역에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서 남아의 경우는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과잉행동 점수가 더 높은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권영옥·이정덕, 1997 참조).

<표 2> 성별, 연령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평균(표준편차)

(N=487)

하위차원	성별		연령	
	남아	여아	10세	12세
빈도	9.15(2.49)	9.21(2.73)	9.17(2.63)	9.19(2.60)
강도	11.05(3.31)	10.62(3.50)	10.93(3.44)	10.72(3.38)
해결	8.43(2.64)	8.14(2.51)	8.55(2.59)	8.01(2.54)
내용	5.89(1.86)	5.47(1.78)	5.70(1.80)	5.67(1.87)
자기비난	7.92(2.20)	7.77(2.30)	8.03(2.18)	7.65(2.30)
지각된 위협	11.99(3.50)	11.29(3.68)	12.43(3.56)	10.83(3.48)
대처효율성	12.01(3.00)	11.67(3.30)	11.96(3.14)	11.72(3.18)
삼각관계	6.03(1.69)	5.94(1.80)	6.02(1.78)	5.95(1.72)
전체	72.48(13.07)	70.11(13.92)	72.79(13.50)	69.76(13.44)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취업유무와 직업, 모의 연령, 가계소득에 따른 아동 행동 문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공격행동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의 직업이 상위직종이며 가계소득이 높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과잉행동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성숙행동과 위축행동은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불안행동은 부의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아동행동문제

아동 행동 문제가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의 하위차원점수와 부부 갈등 전체 점수를 빈도와 백분율에 따라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아동 행동 문제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면 부부갈등의 하위차원 점수 및 부부 갈등 전체 점수의 정도에 따라 전체행동문제와 행동문제의 거의 모든 하위영역이 차이를 보이며 Scheff 검증결과 부부 갈등 하위차원이나 전체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동 행동 문제를 높게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이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며, 부부갈등의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며,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며, 갈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부모 사이에서 곤란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성별, 연령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하위차원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빈 도	성별	.44	1	.44	.06
	연령	.03	1	.03	.00
	성별×연령	13.32	1	13.32	1.95
	오차	3300.95	483	6.83	
강 도	성별	22.42	1	22.42	1.94
	연령	3.92	1	3.92	.34
	성별×연령	34.33	1	34.33	2.97
	오차	5588.18	483	11.57	
해 결	성별	7.48	1	7.48	1.13
	연령	32.08	1	32.08	4.87*
	성별×연령	1.98	1	1.98	.30
	오차	3182.27	483	6.59	
내 용	성별	21.38	1	21.38	6.42*
	연령	.00	1	.00	.00
	성별×연령	.30	1	.30	.09
	오차	1609.98	483	3.33	
자기비난	성별	1.97	1	1.97	.39
	연령	16.46	1	16.46	3.27
	성별×연령	4.73	1	4.73	.94
	오차	2429.93	483	5.03	
지각된 위협	성별	41.72	1	41.72	3.38
	연령	290.91	1	290.91	23.57***
	성별×연령	3.30	1	3.30	.27
	오차	5960.20	483	12.34	
대처 효율성	성별	12.67	1	12.67	1.28
	연령	5.38	1	5.38	.54
	성별×연령	31.62	1	31.62	3.19
	오차	4788.37	483	9.91	
삼각관계	성별	.91	1	.91	.30
	연령	.52	1	.52	.17
	성별×연령	7.83	1	7.83	2.57
	오차	1470.55	483	3.04	
전체	성별	683.30	1	683.30	3.78
	연령	998.50	1	998.50	5.52*
	성별×연령	123.66	1	123.66	2.57
	오차	87337.43	483	180.8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의 변량분석

구분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10.1)	9.71		A	11.92		A	8.78			6.02		
	고 졸(35.8)	9.51	4.38*	AB	11.32	7.67***	A	8.49	2.58		5.73	1.25	
	대졸이상(54.1)	8.87		B	10.30		B	8.05			5.59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20.5)	9.88		A	11.84		A	8.85		A	5.90		
	고 졸(40.9)	9.17	5.38**	B	10.92	7.85***	B	8.33	4.32*	AB	5.66	.96	
	대졸이상(38.6)	8.83		B	10.20		B	7.93		B	5.59		
부의 직업	일용 노무직(8.6)	11.05		A	13.07		A	10.21		A	6.55		A
	생산서비스직(39.0)	9.11	8.78***	B	10.94	8.04***	B	8.20	9.22***	B	4.16**		B
	사무관리직(42.7)	9.02		B	10.43		B	8.03		B	5.56		B
	전문직(9.7)	8.55		B	10.15		B	8.00		B	5.32		B
모의 취업 유무	비취업(69.4)	9.11			10.70			8.19			5.69	.04	
	취업(30.6)	9.35	.89		11.13	1.64		8.49	1.41		5.66		
모의 연령	36세이하(30.0)	9.23			11.03			8.37			6.04		A
	37-40세(46.0)	9.24	2.13		10.87	2.84		8.41	2.94		5.48	3.93*	B
	41세이상(24.0)	8.61			10.00			7.67			5.51		B
가계 소득	99만원이하(5.9)	10.24		A	12.45		A	9.21			6.62		A
	100-249만원(56.3)	9.24	3.30*	B	10.88	4.21*	B	8.34	2.66		5.65	4.20*	B
	250만원이상(37.8)	8.94		B	10.50		B	8.05			5.58		B

구분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삼각관계			전 체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부의 교육 수준	8.35			12.33			12.74			6.25		A	76.08		A
	7.97	2.34		11.94	2.65		11.96	2.92		6.21	3.68*	A	73.14	8.18***	A
	7.67			11.31			11.60			5.79		B	69.17		B
모의 교육 수준	7.99			11.97			12.01			6.26		A	74.71		A
	7.95	1.04		11.96	2.10		12.15	2.79		6.06	3.10*	AB	72.09	7.42***	B
	7.66			11.22			11.42			5.76		B	68.61		B
부의 직업	8.41			12.81		A	12.41			6.70		A	81.19		A
	8.00			11.73	3.00*	AB	12.02			6.05		B	71.75		B
	7.67	1.94		B			11.69	1.30		5.98	6.17***	B	69.94	10.81***	B
	7.51			10.55		B	11.28			5.15		C	66.51		C
모의 취업 유무	7.79			11.55			11.89			5.95			72.24		
	7.97	.71		11.84	.68		11.73	.25		6.07	.52		70.86	1.07	
모의 연령	8.37		A	11.95			11.88			6.31			73.22		
	7.53	5.87**	B	11.57	1.57		11.81	1.14		5.91	2.76		71.40	2.80	
	7.60		B	11.06			11.28			5.79			69.33		
가계 소득	8.52		A	11.93			11.72			6.27		A	76.59		A
	7.97	3.27*	AB	.11			11.95	.37		5.90	8.41***	AB	71.92	4.16*	B
	7.55		B	11.60			11.70			5.59		B	69.51		B

<표 5>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변량분석

구분	집단(%)	공격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10.1)	11.17		A	14.10		A	13.27		A
	고졸(35.8)	10.61	17.19***	B	13.22	8.00***	AB	12.45	19.41***	B
	대졸이상(54.1)	9.72		C	12.33		B	11.06		C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20.5)	11.27		A	13.41		A	12.97		A
	고졸(40.9)	10.43	18.78***	B	13.19	7.00***	A	12.17	22.73***	B
	대졸이상(38.6)	9.49		C	12.13		B	10.75		C
부의 직업	일용 노무직(8.6)	12.07		A	13.93		A	13.76		A
	생산서비스직(39.0)	10.53	14.32***	B	13.28	5.34***	AB	12.13	12.71***	B
	사무관리직(42.7)	9.87		BC	12.41		BC	11.39		B
	전문직(9.7)	9.09		C	11.83		C	10.34		C
모의 취업 유부	비취업(69.4)	10.24	.00		12.86			11.79		
	취업(30.6)	10.23			12.74	.15		11.76	.01	
모의 연령	36세이하(30.0)	10.61		A	12.99			12.10		
	37-40세(46.0)	10.14	3.82*	AB	12.56	.84		11.55	2.37	
	41세이상(24.0)	9.67		B	12.46			11.23		
가계 소득	99만원이하(5.9)	11.76		A	13.62			13.62		A
	100-249만원(56.3)	10.37	8.67***	B	12.93	1.58		12.09	13.26***	B
	250만원이상(37.8)	9.81		B	12.55			11.04		C

구분	집단(%)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 체		
		M	F,t	Scheff	M	F,t	Scheff	M	F,t	Scheff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10.1)	12.78			11.84		A	63.69		A
	고졸(35.8)	12.37	1.26		10.66	9.28***	B	59.31	17.49***	B
	대졸이상(54.1)	12.10			10.17		B	55.38		C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20.5)	12.51			11.30		A	61.46		A
	고졸(40.9)	12.50	2.54		10.61	8.87***	B	58.89	19.14**	B
	대졸이상(38.6)	11.89			9.99		C	54.24		C
부의 직업	일용 노무직(8.6)	10.40		A	12.45		A	65.62		A
	생산서비스직(39.0)	12.30	3.70*	B	10.61	10.70***	B	58.85	15.55***	B
	사무관리직(42.7)	12.21		B	10.20		B	56.07		BC
	전문직(9.7)	11.36		B	9.81		B	52.43		C
모의 취업 유부	비취업(69.4)	12.28			10.51			57.68		
	취업(30.6)	12.24	.01		10.52	.00		57.49	.03	
모의 연령	36세이하(30.0)	11.98			10.86			58.50		
	37-40세(46.0)	12.48	1.60		10.63	2.95		57.51	1.89	
	41세이상(24.0)	11.90			10.01			56.99		
가계 소득	99만원이하(5.9)	12.86		A	12.62		A	64.48		A
	100-249만원(56.3)	12.51	3.80*	AB	10.75	18.27***	B	58.64	13.65***	B
	250만원이상(37.8)	11.81		B	9.83		C	55.04		C

* p < .05 ** p < .01 *** < .001

<표 6> 부부 갈등 변수에 따른 아동 행동 문제

변 수	집단	빈도(%)	공격행동		과잉행동	
			평균/Scheff		평균/Scheff	
빈 도	높은집단	174(35.7)	10.97	A	13.54	A
	중간집단	166(34.1)	10.08	B	12.68	AB
	낮은집단	147(30.2)	9.55	B	12.14	B
	F 값			14.08***		7.40***
강 도	높은집단	178(36.6)	10.94	A	13.35	A
	중간집단	139(28.5)	9.98	B	12.67	AB
	낮은집단	170(34.9)	9.72	B	12.41	B
	F 값			11.91***		3.72*
해 결	높은집단	168(34.5)	10.60	A	13.09	
	중간집단	159(32.6)	10.41	A	12.83	
	낮은집단	160(32.9)	9.69	B	12.54	
	F 값			5.99**		1.09
내 용	높은집단	146(30.0)	11.03	A	13.66	A
	중간집단	155(31.8)	10.05	B	12.57	B
	낮은집단	186(38.2)	9.77	B	12.38	B
	F 값			11.36***		6.87***
자 기 비 난	높은집단	185(38.0)	10.75	A	13.76	A
	중간집단	154(31.6)	9.92	B	12.38	B
	낮은집단	148(30.4)	9.93	B	12.12	B
	F 값			6.42**		12.53***
지각된 위협	높은집단	166(34.1)	10.54	A	13.22	
	중간집단	157(32.2)	10.34	AB	12.78	
	낮은집단	164(33.7)	9.84	B	12.48	
	F 값			3.51*		2.07
대처 효율성	높은집단	148(30.4)	10.47		12.89	
	중간집단	160(32.9)	10.27		13.00	
	낮은집단	179(36.8)	10.02		12.61	
	F 값			1.37		0.60
삼 각 관 계	높은집단	151(31.0)	10.89	A	13.48	A
	중간집단	125(25.7)	10.24	AB	12.61	AB
	낮은집단	211(43.3)	9.77	B	12.48	B
	F 값			9.23***		4.36*
부 부 갈 등 체 전	높은집단	147(30.2)	11.17	A	13.74	A
	중간집단	169(34.7)	10.15	B	12.88	AB
	낮은집단	171(35.1)	9.52	B	11.99	B
	F 값			18.59***		11.39***

미성숙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	
평균/Scheff		평균/Scheff		평균/Scheff		평균/Scheff	
12.62	A	12.98	A	11.09	A	61.11	A
11.49	B	12.04	B	10.21	B	56.51	B
11.12	B	11.78	B	10.18	B	54.76	B
11.78***		6.64**		6.77**		16.95***	
12.76	A	12.76	A	11.16	A	61.00	A
11.19	B	11.90	B	10.20	B	55.94	B
11.24	B	12.04	AB	10.09	B	55.50	B
15.89***		4.21*		9.00***		15.03***	
12.39	A	12.70	A	11.12	A	59.90	A
11.77	AB	12.16	A	10.27	B	57.44	AB
11.15	B	11.91	A	10.12	B	55.42	B
7.27***		3.16*		7.32***		7.66***	
12.57	A	12.67		11.30	A	61.23	A
11.79	AB	11.94		10.28	B	56.40	B
11.16	B	12.22		10.05	B	55.81	B
9.46***		2.42		10.34***		13.00***	
12.54	A	12.49	A	10.91	A	60.45	A
11.68	B	12.48	A	10.45	AB	56.91	B
10.95	B	11.76	A	10.07	B	54.83	B
12.40***		3.14*		4.43*		12.85***	
12.61	A	13.04	A	10.90	A	60.30	A
11.72	B	12.21	B	10.50	AB	57.54	AB
11.01	B	11.54	B	10.14	B	54.99	B
12.47***		11.29***		3.56*		10.92***	
12.39	A	12.89	A	11.03	A	59.67	A
11.84	AB	12.54	A	10.50	AB	58.14	AB
11.23	B	11.51	B	10.10	B	55.47	B
6.17**		10.35***		5.41**		6.90**	
12.28	A	12.55		10.85		60.07	A
11.78	AB	12.40		10.44		57.46	AB
11.43	B	11.98		10.31		55.97	B
3.67*		1.84		1.99		6.84**	
12.96	A	13.04	A	11.27	A	62.15	A
11.83	B	12.42	A	10.54	B	57.82	B
10.72	C	11.47	B	9.84	C	53.54	C
24.38***		11.66***		12.72***		29.62***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서와 같이 여아의 경우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남아의 경우 불안행동은 부부 갈등 전체와 대처 효율성 차원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성별에 따라 부부 갈등과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검증한 결과 부부 갈등의 빈도와 미성숙행동 및 불안행동, 부부갈등의 강도와 불안행동, 지각된 위협과 불안행동 및 위축행동, 삼각관계와 위축행동, 부부 갈등 전체와 불안행동 및 위축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성 검증 수치는 권영옥? 이정덕, 1997 참조).

<표 7>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

	변 수	공격 행동	과잉 행동	미성숙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전 체
남 (N=242)	빈 도	.28***	.27***	.19**	.08	.22***	.29***
	강 도	.20**	.13*	.21**	.08	.14*	.21**
	해 결	.19***	.11	.17**	.07	.21**	.21**
	내 용	.29***	.22***	.24***	.07	.20**	.28***
	자기 비난	.18**	.20**	.24***	.07	.14*	.23***
	지각된 위협	.11	.13*	.19**	.12	.01	.16*
	대처효율성	.04	.06	.15*	.15*	.10	.15*
	삼각 관계	.16*	.10	.16*	.06	.02	.14*
전 체	.27***	.24***	.30***	.15*	.20**	.33***	
여 (N=245)	빈 도	.35***	.17**	.36***	.33***	.34***	.40***
	강 도	.32***	.13*	.27***	.23***	.27***	.32***
	해 결	.21**	.07	.18**	.19**	.23***	.23***
	내 용	.22***	.21***	.23***	.19**	.26***	.29***
	자기 비난	.23***	.27***	.22***	.14*	.23***	.29***
	지각된 위협	.18**	.11	.25***	.30***	.21**	.28***
	대처효율성	.07	.05	.16*	.23***	.20**	.19**
	삼각 관계	.22***	.15*	.16*	.13*	.17**	.22***
전 체	.35***	.21***	.36***	.36***	.37***	.43***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는 <표 8>에서와 같이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령에 따라 부부 갈등과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부 갈등의 내용과 불안행동 및 위축행동, 자기비난과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및 전체행동, 부부 갈등 전체와 불안행동 및 위축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유의성 검증 수치는 권영옥, 이정덕, 1997참조).

2.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아동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변수(아동

<표 8>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상관관계

		변	수	공격 행동	과잉 행동	미성숙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전 체
10 세 (N=245)	빈	도	.30***	.20**	.27***	.17**	.26***	.34***	
	강	도	.25***	.15*	.23***	.12	.16*	.26***	
	해	결	.18**	.07	.16*	.10	.16*	.19**	
	내	용	.23***	.24***	.16*	.02	.13*	.22***	
	자기 비난		.12	.22***	.16*	-.03	.04	.15*	
	지각된 위협		.12	.14*	.21**	.15*	.07	.20**	
	대처효율성		.07	.04	.15*	.16*	.12	.16*	
	삼각 관계		.17**	.11	.20**	.07	.10	.19**	
전	체	.27***	.22***	.30***	.17**	.21**	.33***		
12 세 (N=242)	빈	도	.34***	.22***	.30***	.27***	.32***	.37***	
	강	도	.28***	.11	.26***	.18**	.26***	.27***	
	해	결	.23***	.11	.19**	.14*	.28***	.24***	
	내	용	.28***	.17**	.29***	.22***	.32***	.33***	
	자기 비난		.29***	.26***	.29***	.26***	.34***	.36***	
	지각된 위협		.21***	.11	.24***	.22***	.17**	.26***	
	대처효율성		.06	.06	.15*	.23***	.18**	.17**	
	삼각 관계		.22***	.14*	.12	.11	.11	.18**	
전	체	.36***	.22***	.36***	.33***	.38***	.42***		

*p < .05 **p < .01 ***p < .001

<표 9>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중회귀분석표

변수	공격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b	B	B	B	b	B
아동연령	.08	.03	.14	.04	-.02	-.01
아동성별	-.07	-.01	.45	.07	.29	.05
부의교육수준	-.24	-.06	-.48	-.10	-.17	-.04
모의교육수준	-.34	-.10	-.04	-.01	-.59	-.15*
부의직업	-.33	-.10	-.37	-.08	-.16	-.04
모의취업유무	-.19	-.03	-.32	-.04	-.18	-.03
모의연령	-.02	-.03	-.03	-.04	-.01	-.01
가계소득	.10	.02	.37	.06	-.37	-.07
빈도	.20	.21***	.24	.19**	.19	.17**
강도	.05	.06	-.02	-.02	.04	.04
해결	-.01	-.01	-.06	-.05	-.07	-.06
내용	.12	.09	.04	.03	.07	.04
자기비난	.09	.08	.27	.18**	.19	.14**
지각된위협	-.01	-.01	.02	.02	.07	.08
대처효율성	-.05	-.07	-.01	-.01	.04	.04
삼각관계	.09	.06	.05	.03	.01	.01
회귀상수	8.91		9.26		10.18	
R2adj	.17		.09		.17	
F값	7.38***		4.17***		7.28***	

변수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	
	b	B	B	B	b	B
아동연령	-.13	-.04	.02	.01	.08	.01
아동성별	.59	.10*	.56	.11*	1.83	.09*
부의교육수준	.40	.09	-.03	-.01	-.52	-.03
모의교육수준	-.13	-.03	-.02	-.01	-1.13	-.08
부의직업	-.31	-.08	-.16	-.05	-1.33	-.10
모의취업유무	-.08	-.01	-.03	-.01	-.81	-.04
모의연령	.03	.04	-.01	-.01	-.03	-.01
가계소득	-.53	-.10	-.84	-.19***	-1.26	-.07
빈도	.18	.16*	.18	.18**	1.00	.25***
강도	-.03	-.03	-.01	-.02	.03	.01
해결	-.08	-.07	.06	.06	-.16	-.04
내용	.02	.02	.13	.10	.41	.07
자기비난	.07	.06	.10	.09	.72	.15**
지각된위협	.10	.13*	-.02	-.03	.16	.06
대처효율성	.12	.12*	.06	.08	.16	.05
삼각관계	-.03	-.02	-.04	-.03	.07	.01
회귀상수	9.21		8.33		45.89	
R2adj	.08		.15		.22	
F값	3.62***		6.23***		9.55***	

* p < .05 ** p < .01 *** p < .001

의 연령, 아동의 성별,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유무, 모의 연령, 가계소득)와 부부 갈등의 하위 차원(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삼각관계)을 각각 독립 변수로 하고 아동 행동 문제의 하위 영역과 전체 행동 문제를 종속 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공격행동은 부부 갈등의 빈도만이 의미 있게 예언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과잉행동에서는 부부 갈등의 빈도와 자기비난차원이 의미

있는 예언 변수로 나타났다. 미성숙행동에서는 모의 교육수준과 부부 갈등 하위 차원 중 빈도와 자기비난차원이 미성숙행동을 의미 있게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행동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부부 갈등 하위 차원 중 빈도,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등이 의미 있는 예언 변수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가계소득, 부부 갈등의 빈도가 의미 있는 예언 변수로 나타났고 전체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 부부 갈등의 빈도 및 자기비난차원이 의미 있는 예언 변수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은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연령, 가계소득에 따라 다르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부부갈등으로 두려움을 높게 지각하고 또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또한 아버지가 대졸 이상일 때, 어머니가 고졸 이상일 때,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생산직이상 혹은 전문직 이상일 때, 가계소득이 많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 때 아동은 부부 갈등을 낮게 지각한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은 가정에서 아동이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배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공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가정을 위해 일간지의 가정란에 정기적 칼럼으로 보도하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공익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 문제는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다. 다만 행동 문제의 하위 영역 중 과잉행동영역에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남아의 경우는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여아의 경우는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행동 문제가 다르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에서의 성역할 개념의 변화와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즉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성역할에 윤통적으로 사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부모로 하여금 남아와 여아를 차별 없이 대하게 하여 결국 아동이 보이는 행동 문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행동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직종이 생산 서비스직 혹은 전문직 이상이며 가계소득이 많을 때 적게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일용 노무직인 경우 아동이 모든 하위 영역의 행동 문제를 빈번히 드러냈다. 이는 아동이 주로 아버지의 훈육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학습하는데 (Perry & Bussey, 1984) 일용 노무직 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원만하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문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정도에 따라 다르다. 즉 아동이 부부 갈등의 빈도나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아동은 행동 문제를 많이 보인다. 또한 부부 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하며,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동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며, 부부 갈등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아동이 부모 사이에 끼어서 곤란하다고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행동 문제를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부 갈등에의 노출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 행동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 갈등의 하위차원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행동 문제의 양상도 다양하므로 부부 갈등이 아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 갈등의 빈도와 같은 단일차원을 측정하는 기존의 측정방식을 지양하고 부부 갈등의 다양한 차원을 측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와의 상관관계는 다르다. 즉 부부 갈등의 하위 차원과 행동 문제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더 많으며 부부갈등과의 상관계수도 미성숙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다. 또한 부부 갈등의 하위 차원과 행동 문제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에서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더 많으며 상관계수도 공격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에서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10세 아동보다 12세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 아동 행동 문제와 더 높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듯 부부 갈등이 아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그러나 본 연구 및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해 어느 편의 성이나 어느 연령층의 아동이 부부 갈등에 특히 취약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아동 행동 문제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겠다.

다섯째 아동 행동 문제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행동 문제의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공격행동에서는 부부 갈등의 빈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과잉행동에서는 부부 갈등의 빈도와 자기비난이, 미성숙행동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부 갈등의 빈도 및 자기비난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불안행동에서는 아동의 성별, 부부 갈등의 빈도,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위축행동에서는 아동의 성별, 가계소득, 부부 갈등의 빈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 부부 갈등의 빈도 차원, 자기 비난 차원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 갈등의 빈도는 아동 행동 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 행동 문제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예언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부 갈등 변수에 의해 아동 행동 문제가 설명되는 변량은 변수별로 8%에서

22%이다. 이는 아동의 외현성 문제의 9% - 25% 가 부부 갈등에 의해 설명되며(Grych & Fincham, 1990) 내면성 문제의 약10%가 부부 갈등에 의해 설명된다(Shaw & Emery, 1987)는 결과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아동 행동 문제의 원인으로서의 부부 갈등의 역할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부부 갈등이 아동 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선행조건 혹은 충분조건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다른 많은 변수들이 아동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론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인 연구에만 머물렀으므로 부부 갈등이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단계, 결혼상태의 변화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다. 가족과정 변수인 부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부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 간의 상관관계에서 여아의 경우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동은 자신과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부 갈등상황이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하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과정 변수중의 하나인 부모간 갈등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와 같이 부부 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 간에 작용할 수 있는 다른 가족과정 변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화한 가정환경에서 대처하는 능력이나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Emery, 1982) 한 가정 내의 형제자매를 함께 연구설계에 포함시키거나 아동의 기질과 같은 아동관련 변수에 의한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추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부 갈등상황을 회고하여서 질문지에 응답하는 한 가지 측정방식만이 자료 수집에 사용되어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감정상태나 대처반응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역할극이나 시청각자료를 사용해 아동을 유사한 부부 갈등상황에 노출시켜봄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 모, 기타 가족에 의해 아동의 행동문제가 평가되었으므로 이 자료들 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에 있어 유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임상아동이나 그 가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추후로는 임상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 및 지역과 핵가족, 확대가족, 계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백상창 (1996). 어째서 한국의 자녀들이 망가져 가는가?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출판부.
- 변영인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정신의학*, 2(1), 138-149.
- 한미현, 유안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Associates in Psychiatry.
- Cummings, E.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1.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M.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urman, W., & Buhrmester, E.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ouriles, E. M., Pfiffner, L. J., & O'Leary, S. G. (1988). Marital conflict, parenting, and

- toddl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197-206.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O'Leary, K. D., & Emery, R. E.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M. D. Levine & P. Satz (Eds.), *Developmental variation and dysfunction* (pp.345-364). New York: Academic Press.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Shaw, D. S., & Emery, R. E. (1987). Parental conflict and other correlates of adjustment in school-age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eparate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269-281.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